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CDC가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권장하는 추가 백신을 약사가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

*법률 S.4807-A/A.6476은 유연히 약사가 A형 및 B형 간염, HPV, 홍역, 볼거리, 풍진 및
수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유연히 약사가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 S.4807-A/A.6476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약사는 A형
및 B형 간염, 인유두종 바이러스, 홍역, 볼거리, 풍진 및 수두에 대해 CDC에서
권고하는 대로 백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유연히 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허용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공중 보건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우리는 백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 접종소 개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사가 제공한 백신 접종은 전반적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킵니다.
현행법에 따라 뉴욕의 약사는 성인과 아이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폐렴구균, 급성 대상포진, 수막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응급 치료에 필요한 약물의 투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약사가 성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종류를 확대하고 약사가 백신
접종을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Toby Ann Stavi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우리는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나 곤란을 겪는지 보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지역 약사를 신뢰합니다. 약사가 모든 CDC 승인 백신을
투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고 의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Alicia Hyndma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이용은 기본적 권리이며
코로나19는 의료 시스템의 많은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역

약사는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장 이용이 수월한 경로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움을 주신 Heastie 하원의장과 모든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